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순득,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 of Teaching Commitment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s on Happiness

Soon-deuk Joun,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보육교사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평균차이에 대한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교수몰입, 행복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는 행복감에서 교사경력에 따른 평균차이는 교수몰입과 행복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수몰입 영향력은 도전과 기술의 균형, 자기목적 경험 요인만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도전과 기술의 균형, 자기목적 경험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eaching flow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s on happiness. The analysis method was the SPSS program.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aching flow and happiness according to the marital status of childcare teachers. The average difference according to ag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both teaching flow and happiness according to the teacher's career happiness. Second, the influence of teaching flow of child care teachers was found to be positively significant in happiness. This significance was manifested only by the balance of challenge and skill and the self-purpose experience factors. These results mean that the higher the child care teachers' challenge, the balance of skills, and self-purpose experience, the higher the happines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the basic data for seeking a plan for the middle class of happiness. In particular, this plan is derived by grasping the influence of teaching flow of child care teachers on happiness.

Keywords : Child Care Teacher, Teacher Commitment, Happiness, Teacher's Career, Marital Status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Peace5883@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0, 2021

Revised December 31,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는 산업화 이후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맞벌이가족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정책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양육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보육정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양육자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의 요구가 높아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1,365,085명이며, 보육교직원 331,444명으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4.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육교사는 239,973명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 어린이집 보육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아동 수는 33,315명, 보육교사는 5,720명,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5.8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1].

맞벌이가족 증가에 따른 양육환경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2].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근무환경 등의 개선과 교수몰입 및 다양한 측면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3,4].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수몰입이란 교수활동을 할 때 완벽하게 빠져들어 집중하게 되면서 그 자체를 즐기게 되어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최적의 경험상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보육교사가 교수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직무뿐만 아니라 삶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 교수몰입은 몰입상태에서 볼 수 있는 도

전과 기술의 균형, 행동과 지각의 일치,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이 변형된 느낌, 자기 목적적 경험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0].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은 교수활동을 통해 성취감의 경험, 수업과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고 삶 또한 즐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6]. 그리고 보육교사가 교수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교수몰입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유아도 학습과 놀이에 집중하게 되면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어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5,6]. 교수몰입도가 높은 유아교사들은 유아에 대한 몰입뿐만 아니라 동기나 성취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연대감을 가져오게 되어 교육과정에 열정을 담아 지도한다고 주장하였다[6]. 이처럼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이 영유아들에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행복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행복감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이어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 개념으로 접근하였다[7]. 이처럼 행복감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해 흐뭇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감은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에 대하여 만족한 상태라고 하였다[8].

이와 같이 행복감은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내적 측면을 강조하여 행복감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에 행복감은 정서적 특성의 영역으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9]. 행복한 교사는 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영유아들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교사와 유아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1]. 따라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보육 현장의 교육성으로 나타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몰입과 행복감과의 관계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들이 지각하는 교수몰입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고 피력하였다[12,19]. 또한 교수몰입이 높은 경우 몰입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게 되어 수업환경은 물론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긍정적인 순환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20]. 한편, 유아교사가 인식한 창의적 역량, 자기

효능감, 교수몰입은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상대적 영향력에서 자기효능감, 교수몰입, 창의적 역량 순으로 나타나 교수몰입이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21].

이상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의 교수몰입 및 행복감을 중심으로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대부분 교사효능감 및 직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수몰입과 행복감의 차이 및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수몰입과 행복감의 차이 분석 및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수몰입과 행복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울산광역시 N구, G구, B구, D구, U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75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68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교수몰입 36문항, 행복감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결혼상태, 연령, 교사경력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원지현[11]이 사용한 측정도구의 하위요

인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동과 지각의 일치, 명확한 목표, 피드백, 과제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실, 시간변형느낌, 자기목적적 경험 각 4문항씩 총 36문항, 행복감은 김시연[7]이 사용한 측정도구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교수몰입의 전체 신뢰도는 .935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도전과 기술의 균형 .918, 행동과 지각의 일치 .922, 명확한 목표 .922, 피드백 .922, 과제집중 .926, 통제감 .932, 자의식 상실 .945, 시간변형느낌 .932, 자기 목적적 경험 .925로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의 전체 신뢰도 또한 .922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Teacher commitment	36	.935
Happiness	29	.922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시 조화평균 표본 크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교사경력을 더미(Dummy)화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더미변수는 6개월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등 세 개의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결혼상태는 기혼이 115명(68.5%)으로 미혼 53

명(31.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40세 이상이 92명(54.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31-40세 미만 40명(23.8%), 20-30세 이하 36명(21.4%)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사경력은 7년 이상이 85명(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이상-7년 미만이 54명(32.1%), 6개월 이상-4년 미만이 29명(17.3%)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자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68)	
		Frequency	Ratio(%)
Marital status	Single	53	31.5
	Married	115	68.5
Age	20-30 years	36	21.4
	31-40 years	40	23.8
	Over 40 years	92	54.8
Work experience	More than 6 months - less than 4 years	29	17.3
	More than 4 years - Less than 7 years	54	32.1
	More than 7 years	85	50.6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교수몰입(M=3.60), 행복감(M=3.64) 요인은 전체 평균 점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main variable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eacher commitment	168	2.33	4.83	3.60	.53
Happiness	168	2.52	4.72	3.64	.52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행복감, 교수몰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행복감 요인과 교수몰입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745,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Teacher commitment	Happiness
Teacher commitment	1	
Happiness	.745**	1

* $p<.05$, ** $p<.01$

3.4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수몰입 및 행복감 차이분석

3.4.1 보육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교수몰입 및 행복감의 차이

보육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교수몰입($t=.560, p>.05$), 행복감($t=-.336, p>.05$)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교수몰입과 행복감을 인식하는 수준이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Mean difference of key variables according to marital status

Factor name		Frequency (N)	M	SD	t/p
Teacher commitment	Single	53	3.64	.56	.560
	Married	115	3.59	.52	
Happiness	Single	53	3.62	.54	-.336
	Married	115	3.65	.52	

* $p<.05$, ** $p<.01$, *** $p<.001$

3.4.2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수몰입 및 행복감의 차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행복감($F=3.128, p<.05$) 요인은 40세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40세 이상 집단과 20-30세 이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수몰입($F=1.942, p>.05$) 요인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행

복감 요인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교수몰입 요인은 집단 간 평균이 비슷하게 나타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Mean difference of key variables according to age

Factor name		Frequency (N)	M	SD	F/p Scheffe
teacher commitment	20-30 years(a)	36	3.48	.55	1.942
	31-40 years(b)	40	3.55	.60	
	Over 40 years(c)	92	3.67	.49	
Happiness	20-30 years(a)	36	3.39	.56	3.128* a<c
	31-40 years(b)	40	3.56	.52	
	Over 40 years(c)	92	3.73	.50	

*p<.05, **p<.01, ***p<.001

3.4.3 보육교사의 교사경력에 따른 교수몰입 및 행복감의 차이

보육교사의 교사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교사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Mean difference of key variables according to teacher experience

Factor name		Frequency (N)	M	SD	F/p Scheffe
teacher commitment	More than 6 months - less than 4 years(a)	29	3.43	.28	10.799*** a,b<c
	More than 4 years - Less than 7 years(b)	54	3.41	.60	
	More than 7 years(c)	85	3.78	.49	
Happiness	More than 6 months - less than 4 years(a)	29	3.46	.47	11.360*** a,b<c
	More than 4 years - Less than 7 years(b)	54	3.45	.54	
	More than 7 years(c)	85	3.82	.47	

*p<.05, **p<.01, ***p<.001

보육교사의 교사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교수몰입(F=10.799, p<.001), 행복감(F=11.360, p<.001) 요인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몰입, 행복감 모두 7년 이상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7년 이상 집단과 6개월 이상-3년 이하, 4년 이상-6년 이하 집단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교사몰입, 행복감 요인은 교사경력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보육교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교수몰입, 행복감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4.4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감에 대한 교수몰입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60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0.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23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

Table 8. The Effect of Teachers' Teaching Commitment on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β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Happiness	Constant	1.055	.223		4.737***	
	Balance of challenge and skill	.311	.109	.413	2.860**	.120
	Self-purpose experience	.164	.070	.218	2.353*	.292
	The congruence between behavior and perception	-.137	.070	-.197	-1.938	.241
	Clear goal	.145	.094	.170	1.531	.203
	Feedback	.105	.105	.118	.996	.177
	Task concentration	-.013	.086	-.013	-.154	.332
	Control feeling	.026	.062	.029	.425	.519
	Loss of self-consciousness	.070	.040	.103	1.771	.733
	Time deformation feeling	.022	.061	.026	.354	.468

R²=.605, Modified R²=.583

F=26.917, P=.000, Durbin-Watson=2.237

*p<.05, **p<.01, ***p<.001

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26.917$,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몰입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수몰입의 하위요인인 도전과 기술의 균형($\beta=413$, $p<.01$), 자기목적 경험($\beta=218$, $p<.05$) 요인만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몰입의 하위요인인 행동과 지각의 일치($\beta=-.197$), 명확한 목표($\beta=.170$), 피드백($\beta=.118$), 과제집중($\beta=-.013$), 통제감($\beta=.029$), 자의식 상실($\beta=.103$), 시간 변형 느낌($\beta=.026$) 요인은 표준화계수 베타(β)값이 .3이하로 나타나 행복감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의 하위요인 중 도전과 기술의 균형, 자기목적 경험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및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교수몰입, 행복감은 평균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에 따른 평균차이는 행복감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사경력에 따른 교수몰입과 행복감 모두 유의미하게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수몰입과 행복감을 인식하는 수준이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할 수준이며, 연령은 행복감에서만 교사경력에서는 모두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몰입과 행복감이 유아교사의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경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와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12,13] 그러나 유아교사의 연령, 경력에 따라 행복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유아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수몰입도와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에서는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12,14-18]. 반면,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와는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13].

둘째,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교수몰입의 하위요인인 도전과 기술의 균형, 자기목적 경험 요인만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하면, 행동과 지각의 일치, 명확한 목표, 피드백, 과제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실, 시간 변형 느낌 요인은 행복감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수몰입의 도전과 기술의 균형, 자기목적 경험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몰입의 하위요인인 자기 목적적 경험, 도전과 기술의 균형이 행복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지만 명확한 목표 요인도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14]. 또한 유아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리더십과 교수몰입이 높을 때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높아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유사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10,21]. 한편,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수몰입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자아탄력성과 행복감 사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와도 유사하였다[22]. 그리고 유아교사의 교수몰입은 여가활동 참여와 행복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수몰입을 높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가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19].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교수몰입과 행복감을 지각하는 수준도 대부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지각하는 교수몰입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교수몰입과 행복감의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교수몰입과 행복감의 증진은 오히려 영유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차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및 직무환경이 개선되어야겠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교수몰입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본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부지역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광범위한 지역의 지료를 활용하여 비교연구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향후 보육

교사에 대한 논의가 보다 깊이 있고 실천적인 후속연구의 진행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accessed Dec. 17, 2021)
- [2] H. J. Kwon, J. H. Ba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about infants' adjustment in 1-year-old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38, No.2, pp.61-90, 2018.
DOI: <https://doi.org/10.18023/kiece.2018.38.2.003>
- [3] K. M. Kim, *A Narrative Inquiry on Learning Activity Experience of Nursing Teachers in the County Child Care Center*,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pp.6-12, 2020.
- [4] S. Y. Son, *The Effects if the Mandala Art Theapy to teacher's Job Stress in Child care cente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Art Design Hanyang University, pp.14-16, 2017.
- [5] K. M. K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Flow Promotion Program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ts Effects*,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pp.1-9, 2016.
- [6] H. S. Oh, *Teaching Efficacy and Instructional Creativity according to the Teaching Flow and Happiness of the Childcare Center Teachers : Focused on Gwang Ju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pp.8-14, 2013.
- [7] S. Y. Kim, *Analysis of the structure am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sense of happiness, enthusiasm for the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with their jobs, efficacy, and interactions with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p.50-58, 2014.
- [8] S. J. Kim, *The Effects of Job Stress, Interpersonal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Child Care Teacher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pp.8-12, 2020.
- [9] K. H. Noh, *Impact of the childcare teacher's sense of job vocation and happin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University, 2021.
- [10] J. H. Won, *A structural analysi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teachers rewards happines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Uiduk University , pp.47-51, 2015.
- [11] E. J. Lee, S. L. Kim,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Happiness, and Teaching Efficacy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8, No.5, pp.437-447, 2019.
DOI: <https://doi.org/10.5934/kihe.2019.28.5.437>
- [12] K. M. Koh, S. K. Lee, S. K. Sim,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Flow and Their Happiness and Degre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1, No.1, pp.69-94, 2014.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4.31.1.69>
- [13] J. W.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Happiness and Teacher Efficacy on Pre-Servic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9, No.4, pp.227-242, 2015.
- [14] H. O. Kyung, *The Effect of Taching Flow and Happiness of Experienced Teachers on Teacher-Infants Interaction*, Master's thesis,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pp.43-44, 2020.
- [15] J. H. Jung, K. J. Lee, S. J. Kim, C. Y. Kim, B. L. Kim.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of Guid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Optimism, and Happines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21, No.4, pp.175-198, 2017.
- [16] M. J. Jung, S. Y. Lee, J. Y. Shin.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Health Perception, Teacher Efficacy, Enthusiasm for Teaching Profession on the Happiness of Preschool Teach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AJMAHS)*, Vol.6, No.11, pp.23-36,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1.10>
- [17] M. H. Kim, S. Y. Lee. "An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Flow: Trends, Differences of Variables, and Relationships with Kindergarten Organizational Climat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9, No.1, pp.167-189, 2012.
DOI: <http://dx.doi.org/10.24211/tjkte.2012.29.1.167>
- [18] H. O. Kyung, S. J. KIM. "The Effect of Teaching Flow and Happiness of Experienced Teachers at Child-care Center on Teac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10, No.3, pp.21-38, 2020.
DOI: <http://dx.doi.org/10.30528/jolss.2020.10.3.002>
- [19] M. S. Yun, S. W. Kim, J. J. You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job satisfaction, teaching flow, and happiness",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Vol.16, No.4, pp.229-254, 2017.
DOI: <https://dx.doi.org/10.21183/kjcm.2017.12.16.4.229>
- [20] J. H. Lee, H. J. Ahn. "The Effect of Teaching Immersion and Job Stress on the Sense of Happiness of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3, No.4, pp.427-447, 2016.

DOI: <https://dx.doi.org/10.22155/JFECE.23.4.427.447>

- [21] S. B. Lee, S. H. Hong, H. S. Hwang. "Influence of the Creative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Self-efficacy and Teaching Flow on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4, pp.345-367, 2015.
- [22] J. H. Won, S. B.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teachers' happiness",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4, No.3, pp.167-194, 2015.
DOI: <https://dx.doi.org/10.21183/kicm.2017.12.16.4.229>

전 순 득(Soon-deuk Joun)

[정회원]



- 2021년 1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 2013년 1월 ~ 현재 : 주식회사 평화산업 대표이사
- 2021년 1월 ~ 현재 : 고성복지 발전연구소 마음쉼터 소장

<관심분야>

교육학, 사회복지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